

자연순환농업 중장기 로드맵 연구방향 논의

- 농진청, 중장기 연구로드맵 11월 발표키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로드맵이 나오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연구사업 중 분뇨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크게 4가지 분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부터 10년간 중점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올해 자연순환농업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특별 T/F팀을 구성하여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농진청이 추진하는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 중 자연순환농업 연구를 중점 진행한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현장협의회를 열고, 농진청 관계자 및 농림부, 농협, 대한양돈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로드맵 작성을 위한 의견을 대폭 수렴했다.

이날 농진청은 가축분뇨 퇴·액비화를 위한 제도개선반, 가축분뇨 자원화반, 환경영향평가반, 농경지이용반 등 4개반으로 구성된 연구개발 로드맵에 대한 각 반별 연구현황 및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 가축분뇨 퇴·액비를 위한 제도개선반은 ▲비료분류체계 개편 ▲가축분뇨 발효비용(액)의 기준 현실화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 설정 ▲퇴비 수분함량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반은 ▲가축분뇨 발생량 및 오염물질 저감기술 ▲저비용 고효

율 처리기술 ▲고품질 퇴액비 생산기술 ▲바이오 가스 생산 및 분뇨처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을 중장기 연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반은 가축분뇨 시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농경지 투입이 토양 및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물학적 환경영향평가 기술 ▲환경영향평가 모델링기술 ▲가축분뇨 시용시 농경지 양분 수지분석 및 예측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편성키로 했으며, 농경지이용반은 논·밭·시설재배지·경사지·난지작물에의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기술 연구개발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양돈협회는 현재 돼지 분뇨 배출원 단위가 현재 축산여건의 변화와 사양·처리방법의 다양화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배출원 단위가 다시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추진해야 의견을 전달했으며, 농진청 또한 이를 적극 수렴하여 연구에 포함토록 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농진청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수렴, 이달 하순까지 로드맵 작성을 완료한 뒤 내달 초순 김인식 청장 주재로 '자연순환농업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의 모전영농조합법인 SCB 시설 견학 및 시험포장 방문이 이뤄진 이날 협의회에는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대한양돈협회 부산물비료협회 관계자등이 참석했다. **양돈**